



2007년 일본 LPG업계 주요 뉴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2007년도를 정리하면서 일본 LPG업계의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게재한다.



CP 사상최초 800달러대 돌파



LPG국제가격의 대명사 사우디 CP(FOB가격)가 12월 프로판 860달러, 부탄 885달러로 폭등, 사상 처음으로 800달러대를 돌파, 3개월 연속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국내유통업계를 직격했다. 3개월간 상승폭은 300달러가 넘는다. CP는 전년 동월대비 프로판 부탄 모두 약1.8~2배 급등했다. '07년 평균가격은 '06년대비 프로판 부탄 각각 90달러, 103달러 상승한 600달러, 617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각지에서 가스전시회 활발히 열려



CP급등과 함께 100%전기주택의 공세 등 LPG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객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가스전시회는 가스기기 및 시스템을 제안하는 기회 뿐 아니라 고객수요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07년은 그 어느 해보다 지구환경문제가 이슈화된 한 해였다. 온난화방지를 위한 CO₂절감 노력이 각계에서 진행 중이며, LPG업계도 “LPG=친환경연료”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LPG업계는 이러한 가스전시회를 LPG수요확대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재해에 강한 LPG 입증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LP가스는 분산형 연료로서 최대 강점을 발휘하며 피해자지원에 큰 공헌을 해왔다. LP가스 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달리 지진 후 화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거의 없어 재해에 강점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올해 피해가 심했던 이바라기현 LP가스 협회는 지진재해 발생 후 1주후 “LP가스복구 완료” 선언을 한바있다. 재해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난소 등에 채용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LP가스와 더불어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공공시설에 LP가스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계재편 가속



'07년은 LPG원매회사, 대기업간 사업통합 및 그룹 내 재편움직임이 많았다. 미스이물산과 마루베니는 6월12일, 양사의 LPG사업통합 기본합의서를 체결, '08년 4월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쇼와셀과 스미토모상사가 LPG사업통합 검토에 합의 LPG수입 국내조달분야에서 연계 강화와 양사 산하 판매사를 통합한 소매판매회사를 설립하고, '08년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이토추에빅스와 이텍스가스, 리키드가스와 닛산가스, 동방가스와 동방액화가스 등이 통합 또는 업무제휴를 선언하는 등 원매회사재편이 가속되고 있다. 최근 CP급등, 100%전기주택 확산 등 에너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08년에도 LPG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M&A등 업계재편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일본LP가스연합회 가와모토체제 시동



일련(일본LP가스연합회)은 '07년 6월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가와모토를 선출 가와모토체제가 시작되었다. 가와모토회장은 취임인사에서 ① 안전대책 강화 ② 거래적정화 및 투명화 추진 ③ LP가스유통단체 통합·일원화·개혁 등 앞으로 회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일련은 47개 도현부에 협회가 있고 그 산하 약2만5000의 회원이 있으며, 2800만세대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체에너지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향후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련을 이끌어 나갈지 기대된다.



LPG가스사고 증가경향, 우려의 목소리



‘06년부터 LPG급탕기사고 및 사업자에 의한 서면기재위반 등 불미스런 일들이 계속되어 LPG업계의 이미지가 손상됐다. 소비자기기 안전제고를 위해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개정판 시행규칙이 ‘07년 5월로 시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07년은 제품안전과 준법정신이 강조된 한해였다. LPG가스사고 건수는 ‘06년 219건으로 과거 10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07년에도 7월말까지 135건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고원인은 소비자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나 판매사업자에 의한 부적절한 처리에 기인한 사고도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점검관련 검사제도 도입 및 안전센서부착 의무화 등 행정과 연계한 안전대책이 세워지고 있다. LPG가스관련 사고저감이 ‘08년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LPG업계 생수배송사업 증가



판매영역을 넓히는 사업자는 물론 가스이외의 분야로 사업범위를 넓히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수판매는 최근 10년간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성장 했다. 오랫동안 용기배송이라는 독자적인 물류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LPG업계에 있어서 택배사업은 참여하기 쉬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CP급등에 의한 수익구조 악화와 100%전기주택 공세 등 사업 환경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LPG업계의 생수배달사업은 LPG가스판매에 부가적으로 수익개선을 이룰 수 있어 업계의 주목 받으며 성장해가고 있다.



LPG구조개선사업 종료



경제산업성이 '03년부터 실시한 「LPG가스구조개선사업」이 '07년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다. '03~'06년동안 전국 각 협회가 실시한 구조개선세미나는 1562회에 참가자는 11만3629명에 이른다. 판매사업자 의식개혁, 수요확대, 영업합리화, 경쟁에너지 대책 등을 주요테마로 개최되었고, 일부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LPG가스제품에 대한 PR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열렸다. 구조개선조사는 업무합리화와 경영기반강화, 수요확대, 유통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03~'06년도에 103개사업자에 이루어졌다. '07년 6월 자원에너지청조사에 따르면 구조개선조사실시 결과 5년 전에 비해 구조개선이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는 회답이 약 80%로 나타났다. '07년에 구조사업이 마무리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려 앞으로도 경영기반 강화, 고객이미지향상, 지역사회 신용향상에 주력하여 업계 전체의 구조개선 실현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공급설비 무단철거 금지



LPG가스공사 관련 지식·기술이 없는 전기공사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LPG가스공급설비를 철거, 소위 무단철거를 금지하는 액식법 성령개정이 '07년7월27일 시행되었다. 개정내용은 전기공사사업자 등이 용기 등을 철거할 때 밸브마감조치 등 공급설비기술상의 기준을 충족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배관설비 철거 및 절단 등에는 액화석유가스설비사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확보상 중요한 작업임을 명확히 했다. 철거 시에는 판매사업자에 사전 연락토록 하여 무자격자 등이 마음대로 공사를 감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약160만원) 이하의 벌금, 설비사가 아닌 자가 철거공사를 감행했을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2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전기화주택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사고는 기존 액식법기준으로는 LPG가스설비철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LPG가스연합회가 자민당 LPG대책위원연맹에 진정을 내는 등 관계당국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성령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출처 : (일)프로판 신문